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16

제24 도솔공중계찬품(兜率宮中僞讚品)에 이런 계승이 있다.

“차리리 수많은 세월을 온갖 고통받을 지라도 마침내 부처님의 자재한 위신력과 불법을 멀리하지 않겠노라.”

여기에 대하여 청량 국사는 “진실한 법을 알고서 널리 법계에 들어간다면 수행이 쌓여서 해아릴 수 없게 된다. 이는 부처님을 친견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 계승은 고통을 감수할지라도 부처님을 친근하겠다(苦近佛)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하였다. <화엄경>은 예로부터 ‘십만계승경’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계승이 많은 경전이다. 경문 속에 들어 있는 아들답고 문화적인 표현만으로 보더라도 그 양과 질에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고도 남는다. 그 중에서도 이 계승이 자주

올 들을 수 있다면 오랜 세월 지옥에서 고통 받게 되더라도 감수하겠다”고 설명한다. 위의 내용은 <열반경(涅槃經)> 제7, 성행품(聖行品)에서 설산동자(雪山童子)가 나찰에게 반 구절의 계승을 구하려 몸을 보시하는 모습이, 그 옛날 초등학교 바른 생활 교과서에 실렸던 일을 기억나게 하는 구절이다.

한량없는 낙을 받으라고 부처님 명호 못 들을까 보나.

지난번 제14, 수미정상계찬품(須彌頂上僞讚品)에도 이런 사상의 계승을 볼 수 있었다.

“차리리 지옥의 고통받으면서 부처님의 명호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낙을 받으라고 부처님 명호 못 들을까 보나 / 그 까닭 말하면 지난 옛적에 수 없는 고통 동안 고통 받으며 나고 죽는데 해매면서 부처님 명호 못 들은 까닭이네.”

참으로 처절한 신앙고백이 아

불법위해 지옥불도 마다 않으리

환경 어렵다고 불교 멀리하면 어리석어

기억되는 것은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어서 만이 아니라.

제26, 십지품(十地品)의 제3, 발광지(發光地)의 경문이다.

“만일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 부처님이 말씀한 한 구절 법으로 보살의 행을 깨우치 할 것이 있는데, 그대가 능히 큰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 일러주리라” 하면, 그 때에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 법을 듣고 보살의 행을 깨우치 할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구덩이 속이라도, 오히려 대법전의 위로부터 떨어져 들어가서 몸소 받을 터인데, 하물며 이 조그만 불 속에 들어가지 못하랴. 그리고 내가 지금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일체 지옥의 고통도 받거니와, 하물며 인간에 있는 조그만 고통을 받지 않으리오” 한다.

“명멸한 불 삼천 세계 가득 했는데 법전에서 몸을 먼저 뛰어든대도 법을 듣기 위하여선 어렵잖든 인간의 작은 고통 참지 못하랴.”

청량스님은 “설사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부처님의 설법

닐 수 없다. 화엄경 도처에 이렇게 치열한 구도의 정신이 보인다. 입법계품(入法界品) 제39에도 선재봉자(善財童子)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가(投身火聚) 위험장구로 승열바라문(勝熱婆羅門)에게 법을 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때 선재동자는 즉시 갈산에 올라가서 몸을 불구덩이에 던졌다. 내려가는 중간에서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 법을 듣고 보살의 행을 깨우치 할 수 있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구덩이 속이라도, 오히려 대법전의 위로부터 떨어져 들어가서 몸소 받을 터인데, 하물며 이 조그만 불 속에 들어가지 못하랴. 그리고 내가 지금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일체 지옥의 고통도 받거니와, 하물며 인간에 있는 조그만 고통을 받지 않으리오” 한다.

“명멸한 불 삼천 세계 가득 했는데 법전에서 몸을 먼저 뛰어든대도 법을 듣기 위하여선 어렵잖든 인간의 작은 고통 참지 못하랴.”

청량스님은 “설사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부처님의 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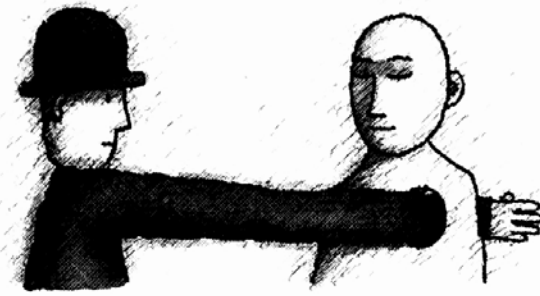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

불교와 과학 <34>

마음이 무엇인지 묻는 순간에 이미 그 마음은 대상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본연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대상화해서는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상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다는 말이다. 선봉기가 무엇이고, 책상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원래 대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량적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으나, 내가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할 때 가장 어렵듯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가 가장 어렵기도 하다. 법구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거늘, 근본을 묻는 일은 그것이 원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기는 쉬우나 답하기는 어렵다.

서구에서 마음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이가 바로 철학자 데카르트였다. 그에게 마음이란 생각함을 낳는 어떤 실체인데 마음의 실체를 직접 알기는 어려우나,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한시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렇게 데카르트에게도 마음을 아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마음은 결국 대상화된 마음이며, 데카르트는 이를 ‘실체’라고 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생각한 실체로서의 마음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실체이듯 신체 역시 공간을 차지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주장인데, 마음과 신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라면 그 두 실체는 독립적이고 따라서 서로의 연관성이 전혀 없게 된다. 쉽게 말해서 마음 먹는 대로 몸이 따라 행동한다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나름대로의 묘안을 내놓았다. 즉 해부학적으로 보면 뒷머리 아래 부분에 송과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지령과 몸의 행동을 연결하는 부위를 바로 그 송과선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런 데카르트의 제안은 말도 안 되는 것이어서 곧 폐기되었다.

현대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뇌에 대한 연구가 증폭되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뇌는 인체의 마지막 블랙박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알기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하다. 그리고 정보공학과 유전공학 분야에서 부각이 멀다하고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결국 뇌공학으로 미래 기술이 집중될 것이라고들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현재의 인공지능 과학으

로는 엄두도 못 낼 신비의 영역이며, 엄청난 수의 신경 세포로 구성된 뇌 구조의 네트워크는 수학적 기능 이상의 다중적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140억 개의 신경 세포와 1300억 개 정도의(수자는 추정치임) 글리아 세포들은 서로간에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활성화되어 간다. 하나의 신경 세포는 많은 때는 수십만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어서 정보 유출입 과정은 간단히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서구의 과학과 철학은 마음을 대상화하여 인식하려 했고, 마음의 체조를 내려고 보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유형적인 물질과 달라, 마음과 신체 혹은 정신과 물질은 같은 범주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난관은 데카르트를 포함한 서구의 철학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최근의 서구철학에서는 마음을 대상화하기보다는 무언가를 지향하는 ‘지향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서구 인식론은 여전히 마음을 대상화시키므로써 지식의 영역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마음

마음은 실체로서의 마음이나 대상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성과 반응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음은 대상이 아니라 작용일 뿐이라는 점이다. 작용으로서의 마음은 삼계(三界)를 만들기도 하고 연분(緣分)을 만들기도 한다. 삼계를 만드는 마음은 식(識)이나 빈나나(vinnana)가 될 수 있고, 연분을 만드는 마음은 의(意, manas)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그런 만큼 흔들리기 쉽고 흔들릴 수 있으며 미묘하고 뜸떠고고 제풀러 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질투와 원망, 노여움과 두려움 그리고 욕망을 일으키는 마음을 무시하거나 단칼에 잘라버림으로써 마음을 평정하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마음은 대상이 아니라 작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망의 마음을 달래고 그런 마음과 실랑이하며 나는 왜 이런 헛된 마음밖에 가질 수 없나 라는 자기괴리와 자신의 허약함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안되지 하며 다시 마음의 작용을 분별하고 항상 새롭게 물결치는 마음의 작용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 평정한 마음을 찾아가는 일이 오히려 심성정정(心性淸淨)의 불성에 겨우 한 발짝 다가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과학

과학 ‘실체’ 있는 대상으로 인식

불교

마음도 비워야 평정 도달

마음은 실체로서의 마음이나 대상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성과 반응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음은 대상이 아니라 작용일 뿐이라는 점이다. 작용으로서의 마음은 삼계(三界)를 만들기도 하고 연분(緣分)을 만들기도 한다. 삼계를 만드는 마음은 식(識)이나 빈나나(vinnana)가 될 수 있고, 연분을 만드는 마음은 의(意, manas)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될 수 있지만, 또한 그런 만큼 흔들리기 쉽고 흔들릴 수 있으며 미묘하고 뜸떠고고 제풀러 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질투와 원망, 노여움과 두려움 그리고 욕망을 일으키는 마음을 무시하거나 단칼에 잘라버림으로써 마음을 평정하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마음은 대상이 아니라 작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망의 마음을 달래고 그런 마음과 실랑이하며 나는 왜 이런 헛된 마음밖에 가질 수 없나 라는 자기괴리와 자신의 허약함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안되지 하며 다시 마음의 작용을 분별하고 항상 새롭게 물결치는 마음의 작용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 평정한 마음을 찾아가는 일이 오히려 심성정정(心性淸淨)의 불성에 겨우 한 발짝 다가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최충덕/상지대 교수 jcho@chak.sang.ac.kr

피부·이념·종교벽 넘어 화합심는 열린 음악회

지구촌 불교 / 세계 성(聖)음악축제

‘이해와 조화’를 모토로 2년 동안 전세계를 순회하고 있는 열린 음악회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6월 1~3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세계 성(聖)음악축제(World Festival of Sacred Music)가 바로 그것. 세계 성(聖)음악축제는 97년 “새로운 세기를 기념하는 범종교 행사를 마련하자”는 달라이 라마의 제안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시 이를 보도한 타임 지(誌)는 “달라이 라마는 종교인으로서 새 세기를 맞는 인류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었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음악’에 주목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티베트하우스’ (인도)와 ‘보편적 의무 재단’ (미국), 세계 성(聖)음악축제를 99년 10월 미국 LA를 시작으로 11월 마시카고, 캐나다 밴쿠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2001년 2월 미국 아르레보르, 4월 인도 벵갈, 5월 캐나다 퀴투루, 11 태국 치앙마이, 2001년 5월 미국 뉴욕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이 음악축제는 이번 히로시마 개최에 이어 이탈리아, 호주를 거쳐 북



99년 미국 LA에서 열린 '세계 성음악축제'에서 공연한 티베트 락 록 '망명 형제'들 모습.

1997년 달라이 라마 제안... 각국 순회 개최

“원벽한 화음은 인류 화해와 용서의 소리”

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매 회 세계 성(聖)음악축제에서는 200~400여 명의 뮤지션들 종교음악, 대중음악, 민속음악, 현대음악을 무대에 올려 상황을 이루었다.

지난 LA 성(聖)음악축제 이후 줄곧 이 행사에 참가해 온 UCLA 미토라 교수(음악학과)는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진리가 여 있는 곳”이라며 “성(聖)음악축제는 서로 다른 진리가 편견을 리고 서로에게 배움을 청하는 자리”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 따르면 가장 완벽한 화음은 인류의 가슴과 가슴에서 우러나오 화해와 용서의 소리이며, 성(聖)음악회에서 그 소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티베트하우스 송키(Chung Key) 사무관도 “이 음악회는 정치, 화, 종교적인 문제를 서로를 구분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서로 다른 소리를 통해 인류의 본질적인 신념과 그것의 상호 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 히로시마 성(聖)음악축제 역시 토시노리 콘도, 빌 라, 웨, 제이 웨블 씨 등 일본, 미국, 영국의 대표적인 음악 프로듀서, 비록해 20여 개 국, 200여 명의 뮤지션들이 참석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번 음악축제 기념 범어를 통해 “세계는 항상 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 잡거나 혹은 멈춰 세울 수 있지만, 그 변화의 원동력이 우리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문제 또한 이해와 조를 좇는 우리의 심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soo@buddhapa.co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 술선식 (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지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 구중구로 (2개월 150만원), 유허간장 (2개월 50만원), 유허된장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시미유」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유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체에 광범위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식품 물질로 지금까지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 료 호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협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호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술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지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 (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